

# ‘남원 세계드론제전’ 성공 개최 총력

### 10월6~9일 종합스포츠타운서 40여개국 선수들 실력 겨뤄 50개 체험부스 운영·K팝 공연·드론라이트쇼 등 행사 다채

남원시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2023 남원 세계 드론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열린다.

드론제전은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2023 대한민국 드론공연 남원페스티벌 ▲2023 남원 세계음식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50여개의 체험부스와 K-POP공연, 드론라이트쇼, 드론스포츠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40여개 나라 국가대표들이 모여 경기를 펼칠 예

정인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는 국제항공연맹 (FAI)이 공인한 최고권위 대회로서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다.

최근 남원에서 열린 'FAI 드론레이싱 사전대회'를 통해 운영프로그램, 전파 테스트 등을 거치며 본대회 준비가 빈틈없이 진행 중이다.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드론산업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다.

전시관은 드론·UAM 정책관, 기업관, 드론실증도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드론산업 컨퍼런스'는 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드론스포츠 및 해외 드론정책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2023 대한민국 드론공연 남원페스티벌'에서는 K-POP 콘서트, 드론라이트쇼, 개·폐회식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분위기가 연출된다.

비행시뮬레이터, 에어로켓발사, 모형항공기제작, 매터버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창작페스티벌, 남원 항공우주 체험 등 50여개의 체험부스까지 부대행사로 풍성하다.

시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서포터즈 활동,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스포츠 채널을 통한 자막스크롤, 가상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에서 개최하는 드론산업 행사로 남원시의 항공·드론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사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외국 관광객 유치' 서울에 홍보존



고창군이 운영하는 명동관광홍보센터.

## 명동에 관광안내서 비치 등

고창군이 서울 명동에 지역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지역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명동관광홍보센터 내 고창군 홍보존을 운영을 시작했다.

일부 공간을 홍보영상, 관광안내서 등을 비치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고창 고인돌 등 7개의 세계유산을 내세운 홍보전략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 세계유산을 적극 홍보해 여행자의 발길을 고창으로 향하게 할 예정이다.

재단은 센터 홍보존 이외에도 서울관광플라자 내 여행사 카페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가 운영 중인 8개의 서울시 관광안내소에 홍보영상 송출과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고창에 대한 알찬 여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과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1월 MOU체결로 상생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서울 여행사 실무진들의 고창 팸투어를 진행해 여행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저탄소 '고창 청춘한우' 홍콩 간다

### 16두 7t 1억4600만원 상당 군, 홍콩 수출 기념식 개최

고창에서 생산된 '저탄소 청춘한우'가 홍콩으로 수출된다.

고창군은 최근 지역 청춘한우 사육농가에서 심덕섭 군수와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 홍콩수출 기념식'을 열었다.

수출량은 한우 16두 7t으로 1억4600만원 상당이다. 이번 홍콩수출은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의 30여 지점에 입점한 후 이어진 성과다.

저탄소 한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사육한 한우다.

청년농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조직해 한우 유전체 검사를 지속 시행하고 개량과정을 거쳐 생산했다.

특히 평균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4개월 이하



심덕섭(앞줄 왼쪽 다섯번째) 군수와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 홍콩수출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로 6개월 이상 단축했고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사료비도 18%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1+등급' 이상 고급육이 70% 이상으로 등급까지 향상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의 홍콩 수출을 통해 저탄소 한우의 원활한 판로 확보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독서의 달' 시민과 책 축제

### '달빛소풍' 다음달 16일 중앙도서관 일원 북 콘서트 등

정읍시가 시민들의 독서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제4회 책축제 달빛소풍'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9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내부 및 야외무대에서 진행한다.

'독서의 즐거움, 일상의 이로운'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과 즐거운 독서문화를 나누고자 작가와의 만남과 북 콘서트, 출판기념식, 작품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이라야 작가가 진행하는 '브런치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아 4중주 메르헨 파르렛의 화려한 선율과 함께 '은유 작가의 글쓰기 상담소'를 진행한다.

오후 1시부터는 도서관 내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두더지의 여름' 김상근 작가와 '하루와 미오' 임정자 작가와의 만남이 열리고,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켜라'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 목차 공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는 야외무대에서 마술 풍선 공연을 시작으로 도서관 봉사 유공자와 책 읽는 가족 시상식과 시민 작가들의 창작 동화집 '정글 보따리 5집', 신년연 아카데미 글 모임집 '우물가 소담소담 1집'의 출판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야외무대에서 '책에 음료를 담은 '서울밴드'와 함께하는 참여형 인문 콘서트로 감동적인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 남원시, 다음달 시내버스 노선 개편

### 11일부터 19개 코스 시간·거리 조정, 환승 가능

남원시가 다음달 11일부터 남원여객-이백면 코스와 시내순환형 10개 코스, 행복버스 시내순환노선 9개 코스를 일부 개편해 운행한다.

남원-이백면 코스는 오후 3시 35분 남원여객 차고지를 출발해 3시 40분 남원여객을 경유하도록

개편됐다.

시내버스-행복버스 시내순환노선은 기존의 시간과 거리가 비효율적으로 운행되었던 부분을 대폭 개선해 시간적, 거리적으로 적절하게 탑승하고 타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시는 개편된 노선표는 경유하는 버스승강장,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버스 부족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수영장 개장에 따른 버스수요 증가로 일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했다"며 "시내버스와 행복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직지심체요절' 저자 백운화상 조명

### 다음달 3일 인문학 토크콘서트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을 만든 백운화상을 재조명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3년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3일 연지아트홀에서 '백운화상을 그리다 인문학 토크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전문예술가들이 나와 백운화상이 엮은 '직지심체요절'과 정읍의 세계유산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려 말 정읍시 교부면 백운마을에서 태어난 백운화상의 '백운화상불조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 상담문의 010-3733-3933